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천변 2길 6번지

2016년 11월 14일 월요일 (음 10월 15일) 제168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100만 국민 촛불민심은 '박근혜 퇴진'



성난 민심이 밝힌 촛불, 광화문 일대를 비추다



광화문 열기, 풍남문과 호응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지난 12일 밤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청광장까지 가득 채웠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이날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들은 물론, 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 가수 이승현씨, 방송인 김재홍씨 등 각계 유명인사들도 참여했다.

광화문을 비춘 촛불은 전주 풍남문에서도 밝게 비춰졌다. 같은 날 밤 전주 풍남문 앞 광장에서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나온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퇴진과 최순실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100만'의 촛불이 청와대 주변에서 일제히 타올랐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백남기투쟁본부·민주노총 등 1,503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지난 12일 광화문 일대에서 박 대통령 하야 및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촉구 3차 촛불집회를 열었다. 촛불집회 참가자 가운데 일부는 자정을 넘긴 13일 새벽까지 집회를 벌였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집회는 주최 측 추산으로 100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이는 종전 최다인 2008년 6월 10일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70만 명을 넘어서는 기록이다. 3차 촛불집회는 본 행사 시작 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서울 광화문서 민중총궐기 대회

시민 100만명 참가 촛불의 열기 늦은 밤까지

시민들 "비폭력" 외쳐 집회문화 새 이정표 세우

전주에서도 촛불집회 전주 시민들도 한목소리로 '박근혜 퇴진' 등 외쳐

구 등에서 개최한 사전집회에는 수만여명이 참여해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사전집회를 끝낸 후 곧바로 서울광장으로 이동해 민중총궐기에 합류했다.

'박근혜 하야', '박근혜 퇴진', '이게 나라냐' 등의 종이피켓을 든 시민들 역시 오전부터 물러들었고, 촛불·하얀색 등을 파는 노점상들도 일찌감치 군데 군데 자리를 잡았다. 본 집회가 시작되자 시민들이 속속 물러들었고 오후 5시 30분에 55만여명을 기록하며 주최 측이 최소로 예상했던 참가자 수 50만명을 넘어섰다. 집회 규모는 5시 20분께부터 행진이 시작된 후 더욱 빠르게 불어났다. 시민들은 서울광장에서 주최 측 신고 4개 경로로 나뉘어 각각 다른 방향(서대문역교차로, 을지로입구역, 덕수궁 돌담길, 한국은행교차로)으로 행진에 돌입했다. 이내 서울 도심은 시민들의 합성과 '하야'가 노래소리로 가득 찼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지난 9일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에서 시작해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4가지(▲서울광장→서소문로→서대문역교차로→서울지방경찰청 앞→경복궁역 교차로 ▲서울광장→을지로입구역→강→안국동사거리→경복궁

역 교차로 ▲서울광장→덕수궁돌담길→새문안로5길→정부종합청사교차로→경복궁역 교차로 ▲서울광장→한국은행교차로→청계천2가 교차로→안국역교차로→경복궁역 교차로) 경로의 행진을 신고했다. 집회참가자는 행진에 맞춰 도착한 시민들이 합류하면서 5시 30분에 65만명으로 늘어났고, 경로별 선두 행렬이 종착지인 경복궁역 교차로에 도착할 즈음인 6시 30분께에 85만명을 찍으며 역대 최다 인원에 이르렀다. 이어 7시 30분께에 주최 측이 최대대로 예상했던 100만명을 기록했다. 행진은 워낙 많은 인파가 몰리다보니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됐다. "박근혜는 퇴진하라"를 외치면서 이동하던 시민들은 낱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하나 둘 촛불을 켜기 시작했다. 촛불이 없는 이들은 휴대전화와 형광등을 흔들었다. 집회에 참가한 많은 이들은 한결같이 '비폭력'을 외쳤다. 이는 '한국=폭력시위'라고 불리우는 잘못된 편견을 한 방에 뒤집은 것.

이날 열린 민중총궐기 행사는 군중 시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되었다. 특정세력의 개입이나 지휘가 없이 '순수한 분노'로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아무리 많은 인원이 모여도 성숙한 시민의식만 깔려있다면 얼마든지 평화집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입증했다. 이날 시민들은 본 집회에서 문화제, 자유발언 등에 박수를 치고 행진에서 "박근혜는 하야하라"를 외쳤을 뿐 몸싸움조차 일으키지 않았다. 한편, 광화문을 드넓게 달군 촛불의 열기는 전주에서도까지 번졌다. 같은 날 밤 전주 풍남문 앞 광장에서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날 시민들은 자유발언자로 참여한 학생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한목소리로 "박근혜는 퇴진하라", "새누리당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이들은 늦은 밤, 집회와 함께 풍남문광장에서 새누리당 전북도당 당사 앞까지의 행진도 벌였다. /김민근 기자

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편성

누리과정 예산 '0원'

전년보다 1252억원 증가한 2조8314억원

내년 1~2월 추경 편성 안하면 보육료 지급 중단

전북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어린이 무상보육) 예산은 전액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란 위기가 또 다시 재현될 조짐이다. 13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예산안의 규모를 전년 대비 1,252억원 증가한 2조8,314억원으로 편성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은 '0원'이다. 전북교육청이 2017년도 예산안 의회 의결 시한인 다음달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김승환 교육감이 내년 1~2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보육료 지급이 중단된다. 이럴 경우 누리과정 대상 유아들과 보육교사들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은 2조3,458억원으로 1,668억원이 증액됐다.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은 870억원이며 지방교육채는 991억원이다.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 1조4,675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488억원, ▲교육복지 지원 2,716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710억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5,623억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1,903억원 등이다. 예산이 반영된 주요 사업을 보면 무상급식 지원에 1,137억원을 편성했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726억원을 반영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 정비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으로 총 1,229억원이 편성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 재정건전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북교육청의 예산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열리는 제338회 전라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돼 최종 확정된다. /고민형 기자

"패기 있는 도전, 아름다운 미래, 네 끼를 펼쳐라!"

대한민국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성료



"패기 있는 도전, 아름다운 미래, 네 끼를 펼쳐라!" 라는 슬로건으로 제16회 대한민국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가 전북대학교캠퍼스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북대 진수당서 열려... 참가자들 모두 자신의 기량 발휘

전국 각지에서 온 113개 청소년 동아리가 수상 영예

포츠·윙댄스, 힙합댄스, 무대공연 등 공연분야와 교육부와 더불어 전문문화, 영상·애니메이션, 미술, 과학·발명 등 비공연분야 그리고 지도자·특별부문 등 총 15개 부문에서 경연을 펼쳤으며 앞으로 점차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회 중등 경연부문 대상은 (사)한국 문화나눔협회의 SuWaLZila가 수상했으며 국무총리상과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여성가족부장관상을 받는 초등부 문 대상과 비공연, 전시/체험부문은 각각 열린문화공간KTOP의 레인보우와 한국외국사과학교의 우마이가 받았다. 여성가족부장관상이 수여된 최우수상, 공연부문의 총열여중의 IRIS와 창의력고 정소리, 신창중 세로토닌드림클럽으로 총 3개 팀이

수상했다. 전라북도도지사상과 여성가족부장관상을 받는 특별부문 동아리지도자상과 동아리 상에는 삼성생활예술고 이조베아커리의 이상민 선생님과 서령고 생활나라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그 외 각 시·도 교육감상 및 지방자치단체상을 받는 우수상에는 대신고 W.K.POWER 등 총 30개 팀이, 전북대학교 총장 및 본 연맹 이사장상을 받는 장려상에는 KYCS수화봉사부 포함 총 75개팀이 수상해 전국적으로 총 113개 동아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본 대회는 건전한 청소년 여가 활동 지원 및 발전을 위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참가비가 없으며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또한 누구나 관람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청소년동아리들의 기쁨을 함께 하는 대회다. 경진대회는 다양한 청소년 동아리들의 폭넓은 교류와 자신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경연의 장을 제공하고 청소년동아리 상호간에 친선 도모와 함께 선의의 경쟁으로 새로운 청소년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 의한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 한마당 잔치가 되었다. /김민근 기자